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위원 이 철
편집장 이 인 우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8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발 주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 3 2 5 호
<주간>
1981년 9월 10일
매주 목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종간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시안마련

과별모집·복수지원·전산과 신설 예정

입학성적 평가는 학력고사70% 내신30%

○……지난 하기방학중 우리학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82학년도 신입생모집전형 시안의 주요골자……○
○……가 밝혀졌다. 이 입시전형시안은 아직 확정사항이 아니고 예정사항으로 문교부와 조정중인데 과……○
○……별모집으로 전환, 복수지원허용, 야간강좌개설폐기검토, 전자계산학과신설등을 주요골자으로 하고 있……○
○……다. 82학년도 신입생모집의 원서접수는 1월7일~1월13일, 합격발표는 1월17일~1월19일, 1차……○
○……전형은 1월22일로 예정하고있다. 복수지원제도는 전기대학중 1개교에 한하여 허용하며 복수지망……○
○……제도는 본교 (용인대포함) 내에서미달학과가 있을때 등일계열 (인문·자연) 내에서만 가능하다고한다.……○

본교 입시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방식을 전담과대학이 과별모집으로 전환하고 전자계산학과등의 신설을 골자로하는 8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시안을 마련하여 문교부와 조정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하기방학중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파생한 82학년도 입시요강을 보면 고등학교장추천입학안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계열별 모집을 해오던 법정대학, 상경대학, 문리과 대학과 용인대의 상경계열을 과별모집하여 본교내전체학과가 과별모집으로 전환하였다.

이와아울러 주요개혁내용으로는 야간 강좌 개설에 더하여 불가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행정담당과의 대립으로 타협조정중에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전자계산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자계산학과는 본교의 컴퓨터도입에 의하여 문리과대학내에설치하고 여타의 신설학과는 본교의포화상태에따른 수용문제를이유로 모두 용인 캠퍼스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성적의 반영율 증가정책에 따라 본교도 82학년도 입시에서는 학력 고사를 70%, 고교내신성적을 30%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나 필자 내신성적 반영율을 높일 예정이다.

야간강좌를 개설치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산업체학생은 모집하지 않을 예정이며 등계진학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경영학과는 고교 내신성적이 30%이내인 8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중에서 상경대내에서 5명을 전형할 예정이다.

82학년도 입시부터 실시할 입시요강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신입생 모집정원의 5%를 복교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학력고사성적위주로 선발하는 타교와 방식과는 달리 본교는 본교 재학생의 졸업고교비율에 기준하여 각 고교에 우수학생 추천을 의뢰하여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수집단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상특인인 시대체를 1인1지망제도에 근거를 두고 복수지망은 미달인 경우 등일계열 (인문·자연) 내에서만 응인대를 포함하여 제2지망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신입생들의 부전공제도에 있어서 81학년도와 같이 부전공의 선택유무에 관계하지 않고 도중에 학기별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할 방침이다.

82학년도 입시요강시안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 과별 모집으로 전환은 등일 계열의 3~4개학과를 묶게 모집하려 한다며학교로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며 과신설에서는 우리대학의 수용능력과 불합력으로 아직 미비한 사회과학계열의 학과신설 등을 중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교장학생선발방법도 고교교육청상과를 촉진하기위한 방안으로 졸이되나 내신성적중시에서 오는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입시성적평가기준으로 부각된 학력고사성적도 좀더 속고해 봐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술원 회원 선임

이범선 교수, 손소희 등문(E·4)

본교 이범선교수와 손소희 등문 (E·4) 이 지난 8월 13일, 본교 교수와 등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술원회원에 임명되었다.

지난 4월 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한 유능하고 참신한회원을 영입한다는 취지하

등문회장학금

3명에 각 40만원지급

본교 등문회에서는 81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재학생 3명에게 각각 40만원씩 지급했다.

지금까지 각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지급되던 등문장학금은 82학년도 신학기부터는 미상 학생수를 더욱 증가하여 등문교수들로 구성된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등문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연은 (G·4) 상숙원(E·2) 오병희 (V·3)

학교버스 증차

용인대 이전을 맞아 본교는 학교버스 8대를 증차했다.

새롭게 단장된 이번 버스는 용인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영되는데 송파지역은 잠실, 성남, 광주등 세곳이며 등하교시에 각각 6회와 7회 운영중이다.

통학코는 학기당 4개월(80일) 을 기준하여 잠실지역이 4만 4천원, 성남 2만 4천원, 광주 1만 6천원임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종무처에서는 현재학교버스 이외에도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버스회사와 교섭중이라고밝혔다.

인도대사와 크리팔라니시인 방문

바고르 국제대학 이사장과 문학원 회장직을 역임한 인도의 작가 크리팔라니(Krishna Kripalani) 씨가 지난 3일 본교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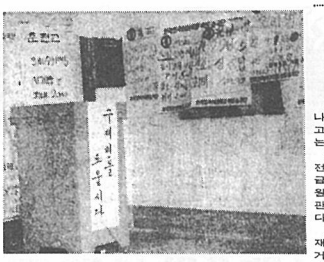
「한국국제문화협회」와 「바고르문학회」의 공동 초청으로 한국에 온 그는 이날 오전 10시 주한 인도대사와 함께 본교 김동선총장을 예방하고 캠소를 나눴으며 이어 학생들과도 만나 간담회를 가졌 예정이었으나 바쁜 일정의 차질이 생겨 간담한 인상보로 대신하고 본교를 떠났다.

크리팔라니씨는 바고르의 본신이라 불리는 만큼 그와 생활을 함께 하고 그의 사상속에서 일생을 지내온 인도의 존경받는 원로급 작가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처, 공무원모집

국가 안전기획부의 요청으로 학생처는 4급을무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험은 10월초에 있을 예정인데 과목은 필수가 영어는뿐, 국사 (국민윤리) 이고, 타만, 학생들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해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미처 위문을 마련하지 못해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지난 지번 찾은 고위층의 격려말은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되었으며, 그것은 상급수해지구로서 제도적인 피해보상책과 항구적 수해방지시설의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과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되었다.



어문촛점

식당앞 모금함, 자주 지나치는 발길에도 멈추하고 눈길조차 머물지 않는다.

배부른 식당앞에서 등전하나 떨어지지 않는 모금함은 고지서같은 1,000원, 2,000원의 등문회공고판 앞에서 더욱 초라하다.

모든것을 잃어버린 수재민을 향한 외대인의 뜨거운 인정이 아쉽다.

우리말의 쓰임새 고마와요 (1)

외국어에도 우리말과 같이 세분된 존대어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모름지기 언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정도도는 존대어를 쓰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어휘나 말귀가 몇가지나 되는지—우리 말만큼이야 될까? (나의 무지 탓인지, 혹) 그러니 우리 말은 개념의 전달 말고도 감각을 촉각처럼 곤두세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1차 등록률 80%

지난 25일 마감한 1차등록생수가 본대학 정리과 발표에 의하면 모두 5,788명으로 밝혀졌다.

이 숫자는 1학기 총재학생 7,233명에 대한 비율로 따져볼때 9780.02%의 높은 등록률을 나타내었다.

요즘 아르바이트금지 조치와 학각금유자 제한 등으로 등록에 상당한 관건을 지고 있는 관변 학생들의 등록률을 감안해 볼때 여타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등록률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당초에 없다던 추가 등록기간인 11일이 곧나면 등록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학기 신규교수 임용

외국인교수 4명포함 9명

본교는 81학년도 2학기 9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했다.

이번 신규임용은 81학년도 학생증원에 비례하고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운 교수들을 보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9명의 신규임용 교수중 4명이 외국인 교수인 것은 본교의 특성과 용인대의 이전에 따른 필요한 교수확보를 위한 것이라 한다.

한편 터어키과에 신규임용 예정인 외국인 교수는 아직 입국하지 못한 관계로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신규임용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어과—이공효 (교수) 응용언어학석사, 물산비아대학, 외대서울대장사.

▲경제학과—한기춘 (교수) 경제학박사, 보스톤대학, 연대교수, 전국회의원.

▲영경학과—구수용 (조교수)

▲정치학과, 하와이대학, 전국대조교수.

▲무역학과—정일용(전임강사) 경제학석사, 영국쉐필대학, 서울대 박사과정, 외대강사.

▲경영학과—이종욱 (전임강사 마두) 일리노이주립대, Temple대학 (M.B.A)

▲용인불어과—Robert Gabriel (조교수) 화학박사, Droit대학.

▲영어교육과—Fred Jeremy Seligson (전임강사) Indiana대학 (인학), 일본교육부대학교수, 외대강당 (1978~80).

▲불어과—이재영 (전임강사) 서울대·경북대 전임강사.

전국 카운슬러대회

방학중인 지난 8월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본교상담에서는 한국카운슬러 제16차 연차대회가 있었다.

이대회에는 전국 중·고교 상담교및 각대학의 학년교수들이 참석했는데, 첫날은 회원등록에 이어 개회식이 있었는데 문교부장관의 치사, 김중선총장의 환영사, 서울시교육감의 축사 등이 있었고 본교 서병하학생처장의 「생애교육과 카운슬러의 역할」에 관한 강연을 비롯한 4개의 논제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대회 2일째에는 장소를 세곳으로 나누어 각기 주제발표및 토론등이 진행되었고, 본교 손봉호교수의 「이해윤리기탄 무엇인가」라는 특별강연이 있었다.

수해복구작업 자원봉사

103명, 3박4일동안 강진에서 실시

잦은 고위층 격려 방문은 오히려 방해돼

본교 학도호국단에서는 태풍 「애그니스」로 인하여 극심한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작업을 돕기위하여 개강시간중 수해복구반을 구성하여 지난 6일부터 3박4일간의 봉사활동을 전남 강진군 군동면 상산리 수해현장에서 실시했다.

103명의 자원자로 구성하여 수해현지로 떠난 수해복구반은 처음에 예정했던 전남 고흥군 빌포읍이 교통이 두절되어 인근 강진으로 방향을 바꿔 오후 6시 강진군청에 도착해 피해상황을 그곳 군수로 부터 들었다. 이어 전계 직원과의 안내로 관내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군동면을 찾아 현장지원에 참가했다.

수해복구작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쏴여진 일정에 따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오전 9시부터 속소에서 5km떨어진 군동면 상산리 신평부락앞 무너진 제방의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했는데 사전작업지침의 미비로 처음에는작업진행에다소 혼란을 겪었으나 참가자 전원이열심히작업을해 인근주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했다.

복구작업현장에는 김종호 전남지사가 직접 나와 격려를 했으며, 이에 앞서 면지서장차 나온 문창수 부지사는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을 위로해주고 힘든 작업에 기꺼이 참가해주어 감사하다」고 치하하고 「400만 전남도민은 여러분의 봉사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해복구작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저녁에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미처 위문을 마련하지 못해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지난 지번 찾은 고위층의 격려말은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었으며, 그것은 상급수해지구로서 제도적인 피해보상책과 항구적 수해방지시설의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과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되었다.

무역대학원 특강 실시

매주 수요일 저명인사 초청

무역대학원에서는 81학년도 2학기를 맞아 대학원생및 학부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7시부터 8시30분까지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시계의 저명인사를 연사로 하는 특강을 마련했다. 9일 첫특강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조순교수의 강연을 마친 9월중 전남 주인공 Dionisio 를 통해 표현하게 된다.

이 연극의 기획을 맡은 3학년 김인재군은 이 연극은 『자유롭고 실년 한 인간이 타시 타협과 관습이라는 사회의 물타리 속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도무의 비극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출은 민용태교수가 맡았고 출연진은 매일 오후 5시 사회과학관 509호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WBC총회 동시통역

통역대학원생 12명

본교 동시통역대학원생 12명이 국내스포츠 협사중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WBC총회에서 능숙한 솜씨로 통역을 했다.

이 동시통역팀은 통역대학원 제 1기습업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WBC총회에서 사용한 한국어, 영어, 불어, 서어, 일어등 5개국어를 즉시 외국어로 통역했다.

총회실 상단에 마련된 7개의 부스에 한사람씩 들어가 발언내용을 즉시 외국어로 통역했는데 참석자들은 리시버를 귀에대고 채널을 조정하여 원하는 답을 들었다.

스터디그룹 연구실 개설

샛별회 비롯 총21개 허가

본교 호국단에서는 그간실시해온 「스터디 그룹」 연구실 사용신청 스터디 그룹 (study group) 을 1차확정 발표했다.

그간 호국단이 학생들의 학술, 예술, 종교등의 연구활동을 뒷받침 하고 실시한 이번 스터디그룹 연구실엔 인식문 연구회를 비롯한 총25개 「스터디그룹」이 신청, 그중 21개가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는 인원미달과 타교생과의 교류 인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스터디 그룹」에는 그간에 서클등록 신청을 했다 허가안됨

「학회」도 있었고, 아예 서클등록의 가말성이 없자 서클등록신청을 포기하고 「스터디그룹」으로 전환하여 등록한 것도 다수있어, 이번 등록 「스터디그룹」도 서울과같은 활발한 활동및 필요성,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된 「스터디그룹」은 다음과 같다.

중어과, 마인어성경연구회, 인식문연구회, 협학개신연구회, 지역사회연구회, 백야회, 포백연구회, 영어연구회, 러시아문학회, 목넌학연구회, 생별회, 독어어 Study Group, E.J C.C (영·일회화), Tou lou Mon, Yalu Gruppe, Clube para estuder, Português, La Italiana, Los Gauchos Berea Bible Study Group, Needing for Free Conversation, 이탈리아연구회.

아랍어클럽 참가

8월16일부터 9월13일까지 29일간에 걸친 아랍학생들의 한국연수에, 본교의 학보담당 학원 아랍어과 학생들이 봉사 참가했다.

사무디정부의 주관으로, 유네스코 학생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을 방문한 아랍학생들은 총103명으로, 이들은 그간 불박사 등 고학지와 공업단지를 돌아보는등 한국의 인속습학 전반에걸친 설명도 있어 학생들의관심을끌었다.

터어키 민속음악연주

터키 민속음악 연주회가 9월 2일 학생회관 212호실에서 있었다.

이 연주회는 터키 민속음악에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가 위하여 열리 것인데 세계음악제에 참가했던 터키인 Necdet Yaser 씨와 Sadrettin Ozgini 부사람이 고유의 현악기와 목관악기를연주했다.

1시간여의 연주후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터어키 고유의 악기에 대한 설명과 민속음악 전반에걸친 설명도 있어 학생들의관심을끌었다.

사 령

▲편집장 이인우(IC·3)
이상 9월 4일자
외대학보사

▲컴퓨터설치와 전자계산학과 설치
—도탁치고 가져갔는다 는 식.

▲각종공사로 화물트럭 행렬.
—이문과 용인의 공통분모는 소음과 먼지.

▲현대사회에서인간이 생존해 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또는 상세하게 관찰해본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어느 일정치 않은 궤도에서 나타나는 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존하는데 있어 어렵게 서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어떠한 마음 가짐으로 말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 가야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의 제기는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많은 세대,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말 또한 많아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하루하루 자신이나 타인의 입에서 표현되는 말에는 순 미더기가 많다. 그렇다고 사람이 해야할 말이란, 곡 필요한 말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늘 필요에 의해 제약받는 말은 의미를 상실하거나 왜곡되기 쉽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 같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어느 일정치 않은 궤도에서 나타나는 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언어의 사용

고차를 막론하고 자주만 거칠어지고 깊이가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안으로 힘있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어떤 사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현대인은 자기언어 (自己語語) 를 쓸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들이, 법률가, 가수가, 코메디언이 흔히 내리는 말을 아무 저항없이 그대로 주워 내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언어표현의 숭고한 자유마저도 그 숭한 언어속에서 자취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말없이 많음때, 물결을 흘르 있는 시간이 주어 받아보자. 그러면 말과 소음의 차이를 알아볼 만큼 필요치 않은 말들, 쓸데 없는 말,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켜주는 위선의 탈 표현등 현대인의 지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며 그러한 침묵은 때로 어느 법죄인보다 커다란 잘못을 범하고 있는수도 모른다.

▲그 그물을 가려 보아야할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비난한 침묵이며, 비겁한 침묵은 우리 시대를 일독지게 한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않는 미신 당장 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회피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닐것이다. <도건영>

꽈띠프 마을에도 하수도가 뚫린다

오아시스에도 하수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사우디의 황금지대인 동부지역 바닷가에 위치한 꽈띠프쯔— 마을 전체가 오아시스와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은 사우디 제1의 항구도시 「제다」 다음으로 서구화 돼 있다는 「다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하나의 섬을 제방으로 육지와 연결시킨 꽈띠프 동부지역은 사우디에서는 보기드물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꽈띠프 마을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40° 정도, 한여름철은 40~50°C 정도이고 겨울에는 조석으로 15~16°C, 한낮은 30°C 정도로 사우디 내에서는 비교적 알호한 기온이다.

5천년 전부터 주민이 살아 왔다는 이 지역이지만 도시계획이 전혀 돼 있지 않고 또 주민들 대부분이 빈도가 낮아 아직도 옛 토담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로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의 사고방식도 매우 봉건적이고 폐쇄적이며 하루 5차례의 예배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정도로 신앙심 또한 강하다. 대체적으로 문명에 물들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 가는 이 마을에 이제 하수도가 뚫리고 있다. 현대도시로의 발파공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하수도 시설, 이 프로젝트를 한양이 이미 80년 8월에 착공하여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량이 방대한 것은 마을에 국한한 하수도가 아니고 수개 都 전체의 종합하수처리 시설의 대단위 토목공사이기 때문이다. 반경 20km에 산재한 3개 都, 18개 부락에 약 1만1천3백40세대를 위한 방대한 공사로 공사비 만도 무려 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양주택은 이 마을에 종합하수시설공사를 하면서 이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마을은 이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현대화 될 것이며 그때가서는 이 마을사람들이 한양주택의 공적을 길이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양주택은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종합건설업체 입니다. 국내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제건설시장에서 한양주택의 실력은 세계의 유수한 건설 전문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롯 건이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 MEED 등은 한양주택이 세계 200대 건설회사 중 38위로 지정하고 발표 하였습니다. 한양주택은 최신설비의 도입, 개발비의 과감한 투자등을 통해 기술의 한계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또다 설계한기술축적인력 국제경험에대응해 나갈 수 있으며, 건설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양주택그룹

임 석 진
<명지대교수>

이 시대를 사는 헤겔 철학

■헤겔 서거 150주기 기념

이성적 인간이 사유주체자로의 「나」인식
한국 철학은 노장의 「자연」·헤겔의 「정신」으로
현실과 개념의 궁극적 자기 실현을 앞당겨야

Ⅰ. 81년도 국제 헤겔연맹총회와 그·변모

올해는 마침 베르빈대학교수로 재직하던 헤겔이 바게(伯爵)만지 150주년이 되어 등시에 발터한 독일 관념철학의 이론적 초석이 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출간된지는 200주년이 되는해이다. 실로 세계 문화와 사상의 발전사 속에서 매일이 이 높은 봉우리에 도달했던 이들 두 거인(巨人)이 공교롭게도 한 시점이서 자주된 이 해를 기념하여 시 뒤히 이데올베르크 대학에 본부를 둔 국제헤겔연맹 (Internationale Hegel-Vereinigung)은 바로 이 모임의 주관자이며 동연맹 위원장이기도한 헨릭히 교수 (Dieter Henrich·빈헨대학)도 지적했듯이 「5백년을 가로지르는」 방세계적 규모의 국제학술연회를 헤겔이 태어난 슈튜트르트시에서 가졌다.

국제헤겔연맹이라는 조직체는 그 연륜 (年輪)을 올라아려서 자그만치 150년이필 쯔도하다. 헤나하면 그 전사 (前史)는 헤겔이 비계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렇학자 종교가 지니는 사상적 내용과 형식을 에최선 중이성 (同異性) 문제에서발단된 첫 계자 (論子) 출간의 본지와 때밀이 조성된 그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 간뿌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찬란한 18세기 독일문화와 학문의 발흥기를지나서 19세기로 접어든 독일은 통일국가 실현을 향한 강렬 집념과 열리를불 배우면서 철학·예술·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탄연 오 뜨가는 선진국대열에 쩌어 들뛰거니와 이러한 독일문화의 전성기는 또한 이만 집산 (聚合緊敏)을 거듭하기라도 하듯 헤겔무와 (右派) 좌간과(中間派) 좌과(左派) 로부터 시작하여 정년 헤겔과를 거치면서 흔히 전 4기로 분류되는 헤겔철학의 부침 (浮沉) 의 역사를 노정시켰다.

이 흐름을 바꾸 19세기 중반에 오면서 새로운 사조를 불러일으킨 인물이바로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로이며 다시 「정년시대의해체」를 발표하여 역사주의적 시각에서 헤겔이라는개인의 생애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던 W·딜타이와 그리고 신헤겔주의의 기치를 들고나온 이배리의 B·크로체 등도 전과에 이바지한 공적을 반한 철학자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오는 사년(思碑)이나 반성을 일삼는 철학의 계에서 은 인부가 안주할수 만은 없던 일, 2차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인간 주체로서의 개인의 내면적생신세계와 또한 범주주의인 존재세계의 본질을 총체적인 운동에 따른 통일적세계로서 과학 하려면 헤겔변증법의 전체포괄성이 섭사리 방대 인별리전차나 전단력인 철학자의 종아로 돌장하기에는 본명히 때이 쯤 같이 없지않았다.

이리한 역사적 상황의 추이와 변천을 겪으면서 1950년대에 접어든 헤겔외했학및 사상은 에인대 하이데르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헤겔」의 저자로 이 해에 한 번 이 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 해는 헤겔이 태어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칸트 헤겔이냐?」 (Kant oder Hegel?) 라는 주제와 「철학적 논증형식의 문제」라고 된 부제가 붙혀주듯이 이번 회의는 결코 시간적인 의미의 선후관계속에서 이를 두 거인을 비교검토하여 마치 상호간의 우열을 가려내기라도 하려는것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분석적, 경험적 내지는 연역적이라고 볼밀 수 있는 칸트의 기초론적 인식태도와 방법과는 달리 전체지향적 역동적 내지는 변증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겔의 범논리적 사유방식을 여기에 견주어놓고 볼 때 양자적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를 양자가 남긴 방대한 저술을 원전자료에 의해서 면밀하게 연구, 경토하되, 단지 여기서 분한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용어 (Textphilologie) 나 특정한 어휘만을 별개하여 그속에서 어떤 상이점을 찾아내는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연역자 변증 (Deduktion und Dialektik) 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이를 두 철학사상이 각기 현대철학과 사상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입혀왔으며 또 현재까지 영향을 입히고 아니면 이를 양자가 지녔던 상이한 철학적 특질과 그 특질이 도달하기 위한 진리의 과학앞에이 펴연 서로의 냉렬한 법주적 사고와 중심을 향한 사변적 종합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바탕, 즉 세계철학의 앞날을 개시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타날수 있겠는가는 점을 따져봐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의의 주제는 실로 독일고전철학 전반에 내포된 논증

헤겔은 진리에 대한 용기와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철학적 학문 연구의 으뜸조건이라 역설했다.

의 방식을 가다듬는 가운데 현대철학과 사상의 원천, 원류를 올바르게 푸시하는 길잡이로서의 회고와 전망을 펼다는 점에서 큰 뜻을 지녔다고 하겠거니와 특히 한발 더 나아가 경제와 쩌세상마저 엿보이게 하는 현대한국철학의 새로운 진로모색과 그 정립을 위해서도 미일이 귀중한 기기성찰과 진단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볼수도 있다.

다같이 이성의 역할에한 기대와 힘을 부여하면서도 소재와 이를 감지하는 경험적 의식의 특연을 결코 등한히 할이 없이 자발적인 의식주체 (Spontaneitat des Bewußtseins)로써의인간이 행사하는 이성적 사유의 실현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시하여 순수이성자체가 이율배반적 내지는자가당착적 (Antinonisen, Perulogismen) 하구의 세계에 발목들지 않도록 하는메노 덕했던 칸트와 같이 한낱 주체로서의 자기확인 문제를 놓고 고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체계에 있어서는 실로 한식도 입후지 않는 역동적 자연적인 실세계의 자기운동이야말로 분명보다도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중구조속의 사유형위자를 규정하고 한정지어주는 근본동력으로 등장하거니와 즉 이렇게 깨계기(部契機)로서의 역사의 전개과정이야말로 이에 발맞추어 사변적 내지 변증법적 사유논리를 구사해 나가는 주체적인간정신의 자기고양을 가능케하며 또한 외부성 (外相性) 으로 부터 자기동일자로 복귀함의 논리긴 철학적과제고부의 생성 전과 그 자체의 실현

세민제 개최에 앞서

파격적, 전반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

총단,고식적입장을떠나 학생들여론에수렴해야

서양이대학, 법정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제7회 세계민속예술제전(이하 세민제)이 법정, 상경(경제학과만이 참가) 문리대및 영어과의 불참사가 거의 확실시 된 가운데 그 한반시비가 일단락되었다.

이는 세민제 행사자체에 대한 명분뿐의 반대론이 결국 한쪽에 수렴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거론되어 구체화인 대안(代案)의 제시나 의사반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못한 반면, 학기초부터 세민제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총단의 일의주도적인(?) 시행태도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민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명분들이나 총단의 고식적인 의사결정, 서양이대학의 미묘했던 참가결정 등에 대한 불신임이 최지 않게 상존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세민제의 개최를 앞둔 현재 총단이나 개최반대자의 입장에 어떤 경직신을 던져주고 있음도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무리한 행사규모 및 연습과정, 진부해진 테자토리, 지나친 행사일변도등 가장 중요한 반대이유로 제시되어졌던 사항들이 총단측의 행사계획상에 별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총단이 외대인의 여론에 그만큼 성실하게 귀를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총단이 구상하고 있는 제7회 세민제의 규모는 역대 세민제중 가장 큰 것으로 종예산만도 지난 79년도 제6회 때보다 1,500만원 이상이 늘어난 4,210만여원에 이른다.이는 11월23일에서 26일의 4일간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7회공연으로 약 25,000명 정도의 관객을 유치할 것을 관자로 하고 있고 공연학과는 연어과를 제외한 서양이대과 등 양이대 (사범대 포함), 경제학과의 총 19개 학과가 결정되어 있다. 공연리셋은 본교생(1일2회)

그리고 법정, 상경, 문리대가 불참원칙을 확실시함으로써 세민제의 성격자체가 확고히 단대행사로 규정된 이상 기획이나 진행의 전반부인 면에서등 서양이대학이 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모든 결정을 총단에서 통괄하고 진행부분만을 단대에 의뢰하는 현재의 주최방식을지고 되어야 한다.

세민제 제1차계획서가 확정되고 그후 2차계획서가 작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방모대의의 수정을 가하지 않은 채 계속 원래의 취지만에 집착해 왔다는 것은 이제껏 우리스럽던 총단의 외지(?) 를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총단은 4차례의 세민제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

<세민제—단대행사로 그성격이 규정된이상 등서양이 대학이 기획,진행의 주축이 되어야한다.>

「세민제 자체를 국단적으로제지시키는 것보다는, 전반적인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 6월 설문조사의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에도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제요인이능여있기는 하지만) 총단은 이를 근거로 충분한 고려 검토를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말 현재 세민제 자체를 국단적으로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전반적인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 6월 설문조사의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에도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제요인이능여있기는 하지만) 총단은 이를 근거로 충분한 고려 검토를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이라고 발혔는데 적어도 이에서는 이제까지의 차원이나 시각을 떠나서 새로운 안목으로 위의 문제점들을 토의하여 결코 희한의 장(場) 이 되지않게 파격적이고 전반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다.

<김영권기자>

기자의 눈

침체된 대학의식에 경종을

최근들어 캠퍼스가 면학의 열기를 더해가면서 자못 학생들의 의식도 발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학생들의 의식구조에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전개되어왔고 그때마다 학생들의 제배주의나 「니힐」 따위의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지적을 거듭해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츰 그와같은 의식의 표피(表皮)가 양파를 조금씩 벗기하여 근본적으로 제배주의나 「니힐」 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다는것이 현재의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어제의 캠퍼스의 분위기가 바뀔때마다 발동하는 파민반응의 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히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장외실에서의 진지함이 엿보이는 이때 그와 상호보완적인 측면의 학생활동에는 소극적이 되었고 무관심의 풍조는 갈수록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비로나 동산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순수 신」 을 읽고 있던 한 학생을 『무슨일을하거나 분기하고 싶지않다. 책이나 읽고 가끔씩 스트레스도 풀고 술이나 마시고....』 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서어활동복을 앞두고 『열정보다는 실리』 가 우선이라며 갑판을박하는 모습도 눈에 띄곤 한다.

. 어쨌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엿볼수 있는 점은 『침잠한 의식』 과 몸에 배기시작한 『방관의 모』 인것 같다. 결국 병폭력인 의식과가 비현실적이라는 것과 바람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는것이 아니라는 자기변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말일 것이다. 즉 대부분의 학생이 주의나 주장에 방관하나마 회의를 느끼는 동시에 적당히 자신 (次鐵) 을 벽해도 무리없다는 식의 심리에 더욱 애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모자라 한 학생은 『제배주의나 니힐은 애당초 없었다. 다만 있었다면 방관적 이상주의나 진보주의 혹은 대학생으로서 어떤 의식을 표출해야한다는 의무감뿐이었다』 라고 말하여 지금의현상이 단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늘 있어오다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을뿐이라고 신랄한 해석을 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학생의 지적이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의식의 변화가 항상 확실한 결론을 가지지 못했다는 과거의 실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이후 학생들이 체험한 것은 제배주의나 「니힐」 은 아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의식화도 결코 아닌것같다. 학생들이 얻은 것은 『가치』 와 『무가치』 사이의 혼돈과 의식의 응고이다.. 실격의 종오감, 형식의 도식화, 계산된 순수, 호도된 이성 경도의 표현이 캠퍼스를 휩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라면 지나칠까.

귀접는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실용주의의 확대해석과 역발최적을 기피하는 소시민주의, 제도화 해버린 사회규범에의 무의식적 적응등이 의식오표서가 아니라 생활로서 캠퍼스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잠정이한 예측도 이제는 쉽게 해봄직한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제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고 하면(冒頭)에서 깨어날 때가 아닌지.

「용인캠퍼스」 그 뿌리를 내리며

□ 2. 통학문제

본교는 이제 종합대학의 결실을 맺고 용인캠퍼스·바람 건설을 위한 1차이전을 마쳤다. 결국 82학년도에 문리대가 이전하면서부터 용인캠퍼스로 향하는 점진적인 외대인의 이동이 예상되지만 마스터·플랜상의 용인캠퍼스 100%구축은 아주 머나먼 길이어, 그때문에 이른·용인캠퍼스간의 상호협조아래 자체적인 장기발전모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현재 용인캠퍼스의 제(諸)문제점을 일찍기 여러차례에 걸쳐 언급되었던 바, 1차이전을 완성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불공론한 여건마련을 위해 보다 시심한 배려를 필요로 할때이다.

용인캠퍼스에서 수학(修學)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커다란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것은 통학문제 이다. 학교행정측에서 실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통학권 사용으로 1차등록 학생의 93%가 이에 응하여 실시되고 있지만는 학생들의부담에 비하여 승차자격이라는 통학권 사용조로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승차지역이 잠실, 성남, 광주등 소수지역에 편협된 것이 아님 러서아워의 혼잡성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비차간격의 비효율성으로 등·하교시에 서서가는 학생들이 허다한것은 그대로 간과해서는안될 문제점이다.

> 통학은 학생들의 부담에 비하여 승차간격이나 배차간격등이 효율적이 되지못하여 불만의 요소가 되고있다. 더구나 통학거리중 10㎞ 정도의 비포장도로는 학생들이나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것은 물론 우천시에는 사고위험율이 높아 조속한 포장이 요구된다

학교행정측의 이에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용인캠퍼스 개시관에 공교찌듯이 『통학권미달금 승차학생』 폐발에 지장되는 느낌을 주어 최지않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현재 용인캠퍼스의 출강하는 교수인원은 71명으로 (강사37명 포함) 정상적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수있다. 학내 시설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삼고실, 열람실과 사운드·라이브러리는 본교의 첫차 비견할 만큼 최신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언어실습이나 시청각수업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운드·라이브러리 열어놓치된 휴게실의 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그의 조속한 보완을 바라고 있다. 학내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구내식당과 다방, 매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방은 한 개밖에 없어서도 본교보다는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가 많다.

이외에도 학교캠퍼스내외 조경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학생들은 등·하교시를 등하여 캠퍼스정경을 내다볼때 실제 캠퍼스 구석구석을 음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도호국단이외에 7개서어클이 활동중에있으며 앞으로 7개의서어클을 주가등록하도록 하여 학생자치활동에 더욱 역점을 둘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밖엔 여러작도에서 용인캠퍼스에서의 학생복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지만, 이것을 초기기반구축에 박표는 어려움일지라도 『결국학교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외대의 컨셉트서는 안될 문제점인것이다. 용인캠퍼스에 그 뿌리를 내리며 모든 외대인들은 이의 성장을 받드시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경>

공약이 공약(空約)?

○…학생회관 1층의 남학생휴게실이 「스터디 룸」으로 개설됐는데 문제는 룸 사용신청이 매우 까다로와 사용신청을 낮다가 취소된 「스터디 그룹」들의 불만이 대단한 모양.

학생처에서 이들 사용자들을 규제하는 이유야 웹라겠지만 기왕에 학학열을 끄러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면 지나친 제약은 오히려 「효자다마」가 될듯.

이규호 문교장관의 힘찬 공약인 「학내토론의 자율화」가 공약(空約)이 되게 하는 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

○…김태식신수의 참여이후 원투에서 즙산즈의 자부심을 충족시킬만한 낭보가 전해져 크로니클 크로니클 크로니클

이달 크로니클

너를자 효못한 마음.

일인자 지난 후기 졸업식때에 출된 통역석사 12명이 WBC총회에서 영·불·일어등 5개국어를 일사불란하게 동시 통역해내고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통역학원들 미미한 보수 문제도 각심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주최측에 충심 (送信) 하는 것도 그리 부고려은 일이 아님을 알려드리는 바.

○…태종 「에그너스」의 침입으로 극심한 상처를 입은 영호남지방에 103명의 의료인들이 봉사활동을 떠났드데.

귀향에매표를 구입하지 못한자에 ○도 보고 ○도 빠자는 영악한 즙산즈가 있는가 하면 못이룬 여름대망의 경험을 이기회에 풀려는 즙산즈까지 모여 외대봉사대 가희 증지가모여졌다고.

확실히 소수는 소수인데 정에 일지는 의문, 어쩌든 못에 어김없이 최선을 다했다하니 그 노고에 에(禮) 의 일인을 올려야겠소.

○…최근 각 대기업의 졸업생유치경쟁이 일로 파열을 향해 치닫고 있는 여파가 본교에도 밀려온 모양이라고.

「참틀텍」에 「니미오」 필름카지문 회한 자비기업의 홍보사원의 치열한 유치경쟁은 크로니클보다 지나치다는 생각도 없지않아.. 4학년 학생들은 그때도 느긋한표정이어서 대조적, 「오라는 데는 많아도 잡데는 없다」고 어깨에 힘을 주시는 모양인데 아소, 「정잡는 게 메」 라고인 학이죠, 취업이든 결단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게임이후 본교 FBS가 그동안 『소리가 너무 작다』는 흔산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스피커의 출력을 높여 불기찬 프내방송을 계속하고있다는 소식.

그러나 그 소리가 아무리 음악이라도 너무 커 장외실을 침범, 소음이되고있다는 새로운 불평불이 쏟아져 한동안 아연했는데.

참으로 「귀」만 다스리기 어려운 것인가 본데, FBS, 참고하시기를.

다스리기 어려운 「귀」

사론

아세아안보와 경제차관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그 이후

김 석 환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킨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일련 중경에서 열렸다. 이 회의의 중요성은 제5공화국의 출범이후 최초의 한일공식회담이라는 견지에서 수평적 신(新) 한일관계 성립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측으로는 그외교 능력의 시험장이었고 일본측으로서도 그에 상응할 만큼의 중요한 회의였다. 회의에 임한 한국측의 주된 목표는 첫째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상존—즉 동북아 안보환경에의 일본의 등의피독—과 둘째60억달러의 안보차 전면된 공공차관문제, 세째 1965년 한일 재국교수립 이후 심각하게 누적되은 무역적자문제, 네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 출범이후 전세계적인 보수주의의 회복세와 안보개념과 연관된 경제협력의 부드럽파고 한국은 일본에 60억달러의 공공차관을 요구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제전후 국가목표를 경제복부흥으로 삼고 미국의 점령정책전환과 미셜이 확대된 가리오아(GARIOA) 에로우(EROA)등의 경제 원조를 착발점으로 하여 닷지라인(Dodge line)을 경과하고 한국동란의 군복수 (軍特需) 를 계기로 경제발전의 기반을 굳혔고 이어서 고도성장으로 연속하여 1968년 이후 자유진영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와같이 일본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미·일 안보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이 안보에 대한 일부와 방위비를 거의 지불치 않고 경제발전에 전력할수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8.15해방 이후 힘사슬(power game)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6·25를 거치면서 경제성은 더욱더악화일로를 치달았고에 국토분단요소등북아 안보의 방파제역할을 전담해야 하는 한국은 총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경제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와 이후 계속 심화된 대일 무역적자는 ㅗ, ㅗ 방지할수없을 정도이어 일본은 한국의 우방을 자처하면서도 한국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공여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제품 을 일본에 미국의 에속시키려 하여 여기에 반일감정의 근저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게다가 이무역 적자문제는 일본 정부의 의욕부족 등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가 많다.

방위비 증정은 하지 않은채 자유진영의 경제구조를 부지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온 일본은 적극적인 반발을 사게되었다. 또 미국의 신정부출현이후 번화된 세계전략개념—미·서구·일본의 공동방위노력이 대(對)소안전보장 정책의 주요 주전력이 바는것과 미국은 이에대한 서구·일본의 응분의 공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즉 미국은 일본의 방위예산을 보다 증가한다고 하는 솔제없는 논의는 피하고 앞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분담 즉 서구방위의 일부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사실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실질적인 역할분담요구에 일본은 한일 상 실질적인 군사역할 는 없을 정도로 누적되은 무역적자 문제와 신한국의 재외교민 보호조항과 관련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 불균등한 한일 어업협정문제등에서 우리는 오히려 실질적인 양보를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근린공리주정책 (近隣窮乏化政策) 을 사용해 왔으며 반화된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된 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대소공동전선 수행에 있어서 일본의 발린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고 한국을 연계선을 전방대조 (Forward Camp for Trp-Wire) 의 입장에 계속머물러있게 할것이라는 사실과 일본의 실질적인 국방비의 증액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안전보장 유지에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남북대화를 비롯한 한국의 실질적인 통일노력에 오히려 역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야할것이다.

<R·2>

근린궁핍화정책 반일감정심화

오타와선언,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은 좋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모든일에 있어서 첫 출발이 중요하듯 첫 직장 선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뜻을 갖게됩니다.

鮮京은 1953년 창립 이래 성장·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한 기업활동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鮮京은 현재 종합무역, 섬유, 화학, 건설 분야를 비롯하여 정유·석유화학공업에도 진출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이룩하였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경영 관리능력 또한 국제적으로 일류 수준이 되도록 하기위해 이미 선경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경영도구로서 적극활용하고 있읍니다.

「세계 곳곳을 우리의 장터로」만들어 나가고 있는 鮮京은 어제와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내다보며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鮮京의 기업 활동이 종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힘껏 일할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함께 열심히 일할때 鮮京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SK 鮮京그룹

혁명의 비교연구

비교사학적 혁명 분석시도
혁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주장
농민반란의 혁명 계기성 강조

박 혜 영

테다 스코치폴 저
한창수·김현택 역

서평

스코치폴-마르크스 혁명이론에 회의적
앞으로의 사회혁명의 양태 달라질 것이 확실

앞 (岸) 의 동서를 막론하고 세계혁명사를 일할하여 프랑스, 러시아, 중국혁명만을 세계사에 일대 전환점이 된 역사적 사건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현대사의 전개과정에 있어 이 세 혁명은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체제상이나 세계를 두 세력으로—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양분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이에 관한 논저 (論著) 도 많았고 여기 그 해석도 각양각색이었다.

여기에 소개되는 「테다 스코치폴」(Theda Skocpol)의 「혁명의 비교연구」는 이러한 과거의 사적 (史的) 전개를 비교사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시각안에 두고 세 혁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원인, 진행, 결과에 따라 인과론적 (因果論的) 으로 분석함에 사회혁명을 추진하는 독자 (State) 의 역할과 힘을 규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이들인 「테다 스코치폴」 여사의 이 저서는 사실 그녀의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난해부터 원서 (原書) 로 소개된바 있다.

「혁명의 비교연구」의 원제는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로 1979년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초판 407페이지로 발행되었고 이년에 도서출판 「카치」에서 나온 이 책은 한창수 (한양대 중·소문제 연구소 연구원) 김현택 (외대러시아어과 졸·육사 러시아어교관) 양씨의 공동 번역으로 368페이지로 되어있다.

「혁명의 비교연구」에서 저자 「스코치폴」은 다른 부 (部) 의 혁명과 달리 사회혁명을 한 사회의 국가및 계급구조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역으로 정의하고 사회경제구조적 측면, 국제적 국가체계와 세계사적 역사발전의 측면, 그리고 국가의 잠재적 자율성이란 원칙하에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관인의 결점성에 기저한 주장인 「사회의 재편력 모순에 근거하는 계급투쟁으로서의 혁명」이란 해석을 반박하고 이 세가지 혁명을 농민을 주축으로한 민중대다수를 토대로한 사회크릴」과 같은 사람은 일찌기 「본질적 상승이론」이란 혁명의 유형이론을 제시, 부르조아혁명의 가능성을 논했고 그 실례로 프랑스혁명과정의 일부를 예로 들고 있었다.

「토크 빌」에 의하면 혁명이 빈·부의 차이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부의 과잉축적으로 인한 부르조아의 불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스코치폴」의 주장과 접근되고 있으나 결코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스코치폴」은 세 혁명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농민반란의 혁명계기성을 강조했고 지배계급에 대한 관심보다 구체적인 내적분과 과정에 보다 촛점을 맞추고 있고 「프랑스와 중국의 혁명이 상층지주계급이 절대군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유발한 농민혁명」에 있다고 보고 「엘장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될 때 행정적, 군사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국가조직과 농민폭동이 융이한 농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가 사회혁명적 상황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그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에 혁명의 결과에 관한 논의도 아울러 전개되었는데 「스코치폴」은 「혁명부정은 국가권인 위기와 계급지배의 위기에 의해 발생하며 사회혁명적결과 이러한 위기에 의해 형성된 기회와 장애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즉 기회와 장애란 「혁명후의 새 국가는 항후 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것이고 「국가내부와 세계무대의 장애 정치적 투쟁」이란 것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사회혁명의결과는 결론 모든 변화의중앙이아니다」란는 설명을 덧붙인다.

「스코치폴」은 또한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이론적 불충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마르크스보부터「혁명이론」과 역사적으로 모순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혁명의 패턴」을 수정, 보완하여 막스 베버의 혁명론을 일가 (一加) 하여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수 있다. 그리고 레닌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신랄하여 이 책의 후반부중 러시아혁명 관련부분은 거의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 대한 구상의 실상과 그 한계성을 규명하는데 바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큼이다.

「혁명의 비교연구」는 「앞으로의 사회혁명이 선진산업사회를 변혁시킬경우 과거의 사회혁명과는 매우다른 형태를 지니며 그 과정역시 장기간의 점속적인 비개혁주의성격의 개혁으로부터 시련없이 절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예측도 부기하고 있다.

「혁명의 비교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 2부 8장으로 되어있다. 제1부와 2부는 각각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서의 사회혁명의 원인 (원제 : Causes of Social Revolutions In France, Russia and China)과 결과 (원제 : Outcomes of~)로나뉘어져 구체적인 위기 및 농민봉기, 혁명이후의 국가건설과 사회체제의 형성등 과정별로 나누어져 있다.

<F·3>

외대의 문학 잠에서 깨어나야
—문학상 마감 연기에 부쳐

본교 문학풍토의 구조적 취약성은
개인·동인(同人)의 차원으로 극복해야

『나는 외국어대학 전체의 위신을 위해서는 당선작을 내지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문사측이 당선작을 요구하므로 할 수 없이 추천할밖에 없다. 』

79년 외대문학상의 심사를 맡았던 한 심사위원의 말이다. 기자와 낯을 트겠게 했던 이 말은 작년의 외대문학상 심사과정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재현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물시 한 심사위원이 거의 신경질적으로 내뱉던 말은 기억조차 새롭다. 『일간지 독자 투고 수준도 못되는…』

다시 커내기조차 부끄러운 이런 평가를 새삼스럽게 꺼내내는 것은 굳이 세년씩이나 연기되고 있는 외대문학상의 작품마감때문만이 아니다. 도 79년도의 문학상응모작품수가 총 응모자 28명의 70여편에 불과했고 소설부문에만 당선작을 낼 뿐이어 작년도에는 한 술 더해 전 부문에 총 53편중3여 명분 부문은 응모조차 없었다는 나태와 안일에 만족하는』이란 결과 발간지 않은평가를 받아온것도 결국 최근자 같은 현상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는것이다.

문학풍토의 재건과 보다 바람직한 대학문화의 창달 보시 대학인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요구될 수 있는것이며 또한 주구할 가치가 있는것이다.

이러한 일반의 요구풍속을 위한 첫번째의 일은 침잠된 문학풍토의 재건을 위한 자기반성과 검증의 자세일 것이다. 다시말해 독자가 말하는 『외대에서 문학이 다시 고양되기란 쓰러기통속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일』이라는 결정론적 비관주의를 스스로 극복해내는 자세의 정립이란 점이다.

한편 본교의 문학풍토에 대해 일자리요로 지적되어온것이 『문학풍토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비판이다. 문학을 공부하기 보다는어학을 할구라는데서 오는학문적 편향성에 그 치유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것인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바로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문학풍토의 조성만을 위해 교육자체가 수정될 리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문학의 연근은 함정 빠이 아니란 문학을 사랑하고 지망하는 개인이나동인 (同人)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교내에도 개인적이거나 동인회성격이거나 문학을 지향교 지향하는 학생들이 적잖은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문학을 개인에서 전체의 차원으로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지속하느냐하는 것이다. 주변적 상황적 요소와 함께 외대의 문학열에 가혹반응을일 으켜온 본교의 학풍과 외대생의 현실주의적 잠성에 대해 문학을 통해 치열한 의식을 형가하는 것은 결코 가치없는 일이 피지는 않을 것 같다.

학내 도처에 솟아 나름 대로 이성의 깊날을 세우고 있는 인재는 도탄 많다. 이들이 독립으로서, 자기반속으로서의 글쓰기에서 발피하여 현실앞에 부끄럽때 비로서 문학열 고취와 저변확대라는 과거의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저변이 확대되고 관심이 깊어지면 우수한 작품이 양산되고 이것은 나아가 우수문인의 배출은물론 대학의 문학적 풍토조성이라는 중첩적 귀결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외대 문학상은 이의 현상적 계기를 만들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표되지 않는 학문이란 있을 수 없고 또 발표되어 경연한 바라을 구하지 않았더면 그가 소유한 사상은 인재나 자신의 독백일 뿐이다. 김현승 시인이 대학의 문학잡지에 시를발표하지 않았던들, 그리고 구상 (具常) 시인이 원심에서 동인지를 만들지 않았던들 어떠면 이들은 문학하는 인연을 몇지 못했을것이다.

외대가 언제가지나 문학적 「소매기풍」일 수 없고 외대인이 언제가지나 「「차원적인간」일 수는 없는노릇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유의결과를 작은 계기를 만드는데 상재할수 있다면 본교의 문학적 토양은 다시 기름질수 있을 것이며 「장자는이성」 운운에도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외대 문학상은 작은 하나의 계기로서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인>

아르바이트은행을 찾아서
대학생의 15%인 6만명, 아르바이트 필요성 느껴
대다수, 모험개척정신에 소원한채 쉬운일만 원해

기자의 말길

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이리한말이 유행처럼 떠돌았다.

「명문학교 4년이면 집한채를 산다」

이 말은 그시대의 대학생들이 과외라는 최상가 보수의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해서 타향의 불결식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것이었다.

물론 그때의 과외비년도 없지 않았으나 그들이 학문 탐구라는 학생 본연의 자세를 넘어서고 학비마련을 위해 일했던 부류이 숱한 진통이 되어버리는동적지않은 사회적폐단을 가져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지나친 교육열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어딥지않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후 파외과열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과외비가 미부나없이 거액으로 인플레하는놓 극적인 폐단을 보여주기에 이르렀고 이의 반작용으로 이루어진 조치가 「7.30파외금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떤게 수학하던 학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고 그의 여파는 대학가의 시설이나 주점이 집체 피일하다는 소식, 또는 성종의 기형 아르바이트 기사에서 실감있게 느껴볼수가있다.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은 이러한은 복잡치, 사회적 상황이 그반수로서 작용하여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이 아닌가 싶다.

기자가 중구 경향 경향신문사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을 찾았을때 그곳의 담당자는 이제막 시작하는 사업의 책임자답게 의욕적인 사업내용을 들려주었다.

8월10일 처음 대학생아르바이트은행이 문을 열게 된것은 현실적 필요의 소산이라지만 실은 아주 우연한 것이었다고 한다. 경향신문의 자매 월간지인 「경향문화」지별200호기념 특집좌담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낯설 대학생들이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사회적으로 일찌적인 참구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고한다. 그후 경향신문은 각대학의 부직 알선담당 교수와 많은 사회인사를 통하여 의견을 경청한결과 경향신문의 창간 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은행」을 개설하기 이르렀다.

기자가만나 담당자는 「전국 대학생의 숫자가 40만명인 것으로 보면 그 15%에 해당하는 6만명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은행 개설 1개월이 지난 지금 각대학 학생처 공구를 경유하여 신청 접수된 학생의수는 전국을 통틀어 4,500명을 웃돈다고 말했다. 그만큼 많은 학자의 신청을 고려한다면 그리 부족한수는 아니다.

아르바이트 은행의 이용방법은 이러하다. 각 대학 학생처에 마련된 부직 희망자 신청서를 학생처에게 줄하면 경향신문사의 독립기관인 아르바이트 은행은 이를 집합하여 각 기업체 및 정부단체의 부직 채용 란 한다음, 조건이 맞은 학자의 신청을 고려한다면 그리 부족한수는 아니다.

아르바이트 은행의 이용방법은 이러하다. 각 대학 학생처에 마련된 부직 희망자 신청서를 학생처에게 줄하면 경향신문사의 독립기관인 아르바이트 은행은 이를 집합하여 각 기업체 및 정부단체의 부직 채용 란 한다음, 조건이 맞은 학자의 신청을 고려한다면 그리 부족한수는 아니다.

은행 개설후 한달 동안에 느낀 점을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는 요즈음의 대학생들은 어려운 일이나 고됨 일은 기피하려는 경향이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신청자의 9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사무보조나 필경 (筆耕) 및 조사원활동 등 비교적 손쉬운 작업만을 원하고있으며, 상품 배달이나 음식점 간이주점의 점원등은 거의 모두가 기피한다는것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도없으면서 새로운 상황에 도전한다는 모험·개척정신의 의미를 소원하게 미루어놓는것이 오즈음의 대학인의 현실인것 같아 아쉬운 마음만이 앞설 뿐이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단순히 물질의 획득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정신과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며 사회경험을 쌓는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더욱 좋은경험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현재 (8일) 까지 본교학생처를 통하여 부직 신청서를 낸 외대 학생의 수는 약 120명 선. 필코 희지않은 학생들이 관심을가지고 있는것이 놀랍하다. 이들은 물론 적합한 직업을 얻게되 겠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업전선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들의활동은 각 기업체를 통하여 아르바이트은행에 보고되어 그것이 바로 개인평만이아니라 외대 학생들의 질과 성실도를 판가름하는 외대상의 척도가 될것이며 차후에 아르바이트를 알선받게될 학생들에게 영향을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권·박대상기자>

문학단신

▲여성문제연구회가 주최하는 제5기여성학강좌가 오는 15일부터 11월24일까지 (매주 화요일 하오6시30분) 국립여성복지원 3층 풍연구원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4일까지로 선착순60명으로 마감한다.

▲프랑스문화원은 8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문화회관에서 앙주의 달팽·부셀의 2인초대전을 갖고 있다.

▲지난 7년동안 스웨덴에서 활동해온 도예가 박시우씨가 8일부터 15일까지 롯데쇼핑 5층 화랑에서 귀국도예전을 갖고 있다.

우리의 고전 「춘향전」이 전14장의 창극으로 써여져 국립창극단의 제35회 정기공연으로 한가위 명절이전 8~14일 (평일 하오7시, 주말 하오3시, 7시)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허규연출 박귀희 작창으로 공연되는 관소리 「춘향전」을 현존하는 5마당의 관소리중 규모가 크고 음악적으로도 우수하여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우리네 가락과 삶이 배어있는 이 작품을 통해 춘향전의 시대성 사회성에 눈을 돌려보고 전통예술의 깊은 맛을 엿볼 수 있다.

가을, 새의 초상(肖像)

이 희 욱

상심한 새 한마리가 불쑥
벌든 숲속을 지나 하늘로 날라갔다.

마른 침을 삼키는 신(神)의 쓸쓸함이
어중간한 공간을 타스리고
멀리(別離)의 짓밟을 흔들면
아, 그 날쌔의
나는 눈물을 자주 흘렸고
덩청난 깊이의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는 습관에 쉽게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이제 가을은
불꾸의 잠자결에서 살랑거리고 있다.
우리는 전혀 빠진 사랑을 되씹으며
가을의 질탕을 이야기했고
다시금 아픈 기억을 안고 돌아온 새는
녹슨 공장에 한점 흩음을 흘리고 돌아갔다.

우리는 아픔 구석을 파파하게 탐고
정갈한 해방을 풀어헤 치다가
간폭 내리비치는
새의 불안한 날개짓을 보며
돌아서 보이던 눈물을 마주보며 흘렸다.

어느때 부퍼인가 가을이 시작되면서
하늘 쳐다보는
나약한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C·2>

오늘의 시인들

이탈의 6인저

이 책은 「손자 손가락」 동인인 김종헌, 김원효, 강우식, 이탈, 이영남, 박제천 여섯 사람이 자선 (自選) 한 주요작품과 이것을 중심으로 한, 시인·평론가들의 해설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의 우리 시의 특색 성격을 알시하는 이 시선 (詩選) 은 독특한 개성의 시인들이 구축해온 작품의 세계를 보여준다.

<탐구당간·값 천이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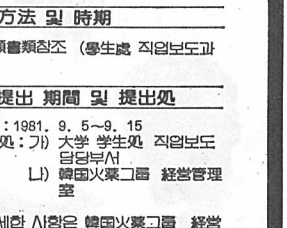
(새로나온책)

업턴 실레어저 박순환역 힘의 예술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민중 문학의 복권을 부르짖으면서 전통적인 세계문학및 예술사를 뒤엎고 새 세대를 위해 전혀 새롭게 쓴 세계문화사이자 사회비평서이다. 그 시대 작가들의 시대 정신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재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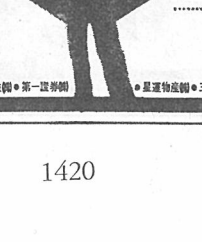
<종로서적 출판부간·값 삼천원>

외대만평



노선확장

韓國火藥그룹은
精油, 發電, 石油化學,
化學, 機械, 建設등
國家基幹産業을
先導하는 企業이며
安定된 직장,
安定된 生活터전을
마련해주는
責任있는
企業입니다.



韓國火藥그룹 社員募集案內

1. 該当学科

區分	学 科	人員
人文	經営学, 經済学, 貿易学, 統計学, 会計学, 法 学, 行政学, 政治学, 外交学, 社会学, 英文学, 서반아語	○○○名
理工	化工学, 機械工学, 土木工学, 建築工学, 電気工学, 電子工学	○○○名
其他	上記学, 専攻者外 証券, 保険, 電算 (EDPS) 乗務 希望者	○○名

2. 応募資格
1) 1953年 1月1日 以後出生者
2) 兵役畢 또는 免除者
3) 既卒業者 또는 '82年2月 卒業予定者

3. 提出書類
1) 入社志願書 (당그룹 所定様式으로 学生処 직업보도과 비치) ……1통
2) 卒業証明書 또는 卒業予定証明書 ……1통
3) 全学年 成績証明書 ……1통
4) 学長推薦書 ……1통

4. 銓衡方法 및 時期
入社志願書類참조 (學生處 직업보도과 備置)

5. 書類提出 期間 및 提出処
1) 期間 : 1981. 9. 5~9. 15
2) 提出処 : 가) 大学 学生処 직업보도 담당부서
나) 韓国火藥그룹 経営管理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韓国火藥그룹 経営管理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2-1529 (직)23-0381(交)612, 613)

韓國火藥그룹

●韓國火藥●韓國비이링그루●골든밸商事●韓國프라스틱工業●大一乳業●太平洋建設●太平洋엔지니어링●第一火災海上保險●第一証券●星運物産●三喜運運●高麗시스템産業●京仁에너지●第三石油販賣●太平開發(프라자호텔)●유니온포리마●學校法人 北一學園